

2013년 2분기

**삼성전자 경영설명회**

2013년 7월

본 자료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 기준의 영업실적입니다.

본 자료에 포함된 “2013년 2분기 실적”은 본사, 자회사 및 관계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, 그 내용 중 일부는 회계감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“예측정보”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, 표현상으로는 ‘예상’, ‘전망’, ‘계획’, ‘기대’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.

“예측정보”는 그 성격상 불확실한 사건들을 언급하는데, 회사의 향후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.

- 환율, 이자율 등의 변동을 포함한 국내·외 금융시장의 동향
- 사업의 처분, 인수 등을 포함한 회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
- CE (Consumer Electronics), IM (IT & Mobile communications), DS (Device Solutions) 등 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분야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여건 변화
- 기타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·외적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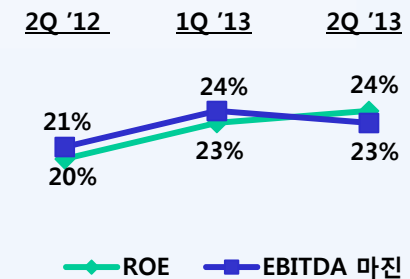
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사의 실제 미래 실적은 “예측정보”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함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# 전사 손익 분석

| (단위: 조원)          | 2Q '13       | (매출비중)        | 1Q '13       | (매출비중)        | 2Q '12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<b>매출액</b>        | <b>57.46</b> | <b>100.0%</b> | <b>52.87</b> | <b>100.0%</b> | <b>47.60</b> |
| 매출 원가             | 34.34        | 59.8%         | 31.38        | 59.4%         | 29.97        |
| <b>매출총이익</b>      | <b>23.12</b> | <b>40.2%</b>  | <b>21.49</b> | <b>40.6%</b>  | <b>17.63</b> |
| 판관비               | 13.59        | 23.7%         | 12.71        | 24.0%         | 11.16        |
| -연구개발비            | 3.54         | 6.2%          | 3.33         | 6.3%          | 2.87         |
| <b>영업이익</b>       | <b>9.53</b>  | <b>16.6%</b>  | <b>8.78</b>  | <b>16.6%</b>  | <b>6.46</b>  |
| 기타 영업외 수익/비용      | 0.09         | 0.2%          | △0.10        | △0.2%         | 0.26         |
| 지분법 손익            | 0.21         | 0.4%          | 0.18         | 0.3%          | 0.27         |
| 금융손익              | △0.003       | -             | 0.19         | 0.4%          | △0.26        |
| <b>법인세 차감전 이익</b> | <b>9.83</b>  | <b>17.1%</b>  | <b>9.05</b>  | <b>17.1%</b>  | <b>6.73</b>  |
| 법인세 비용            | 2.05         | 3.6%          | 1.89         | 3.6%          | 1.54         |
| <b>순이익</b>        | <b>7.77</b>  | <b>13.5%</b>  | <b>7.15</b>  | <b>13.5%</b>  | <b>5.19</b>  |

## 주요 수익성 지표

|                   | 2Q '13     | 1Q '13     | 2Q '12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<b>ROE</b>        | <b>24%</b> | <b>23%</b> | <b>20%</b> |
| 매출액 순이익률 (순이익/매출) | 0.14       | 0.14       | 0.11       |
| 총자산 회전율 (매출/총자산)  | 1.19       | 1.14       | 1.18       |
| 재무 레버리지 (총자산/총자본) | 1.48       | 1.49       | 1.52       |
| <b>EBITDA 마진</b>  | <b>23%</b> | <b>24%</b> | <b>21%</b> |



# 사업군별 매출 및 영업이익

## 매출

| (단위: 조원)   |  | 2Q '13       | QoQ         | 1Q '13       | 2Q '12      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<b>총 액</b> |  | <b>57.46</b> | <b>9% ↑</b> | <b>52.87</b> | <b>47.60</b> |
| CE 부문      |  | 12.78        | 14% ↑       | 11.24        | 12.83        |
| VD         |  | 7.94         | 7% ↑        | 7.43         | 8.58         |
| IM 부문      |  | 35.54        | 8% ↑        | 32.82        | 23.36        |
| 무선         |  | 34.58        | 9% ↑        | 31.77        | 22.43        |
| DS 부문      |  | 17.05        | 8% ↑        | 15.81        | 17.03        |
| 반도체        |  | 8.68         | 1% ↑        | 8.58         | 8.60         |
| - 메모리      |  | 5.70         | 11% ↑       | 5.12         | 5.42         |
| DP         |  | 8.18         | 15% ↑       | 7.11         | 8.25         |

## 영업이익

| (단위: 조원)   |  | 2Q '13      | QoQ         | 1Q '13      | 2Q '12     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<b>총 액</b> |  | <b>9.53</b> | <b>9% ↑</b> | <b>8.78</b> | <b>6.46</b> |
| CE 부문      |  | 0.43        | 83% ↑       | 0.23        | 0.73        |
| IM 부문      |  | 6.28        | 3% ↓        | 6.51        | 4.13        |
| DS 부문      |  | 2.92        | 58% ↑       | 1.85        | 1.69        |
| 반도체        |  | 1.76        | 64% ↑       | 1.07        | 1.03        |
| DP         |  | 1.12        | 46% ↑       | 0.77        | 0.71        |

주) CE (Consumer Electronics), IM (IT & Mobile communications), DS (Device Solutions), DP (Display Panel)

※ 각 부문별 매출액은 부문간 내부 매출을 포함하고 있음

※ 사업군별 매출 및 영업이익 정보는 '13년 조직기준으로 작성됨

# 사업군별 실적 분석 [2분기]

## 반도체

### [메모리]

- 시장 : PC 수요 부진 지속, 모바일향 수요 견조, SSD 시장 확대 지속
  - DRAM : PC DRAM 수요 부진, 서버/모바일 수요 견조
  - NAND : 스마트폰 및 보급형 Tablet 수요 증가, SSD 채용 확대로 수요 견조 지속
- 당사 : 고부가/차별화 제품 비중 확대 및 원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실적 개선
  - DRAM : 고부가 Specialty(Mobile/Server) 제품 시장 수요 성장세 적극 대응, 판매 확대
  - NAND : 10나노급 공정 전환을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, 고수익 솔루션 제품 및 3bit 비중 확대

### [시스템LSI]

- Mobile AP 판매 감소 영향 등으로 매출 감소

## D P

### [ LCD ]

- 시장 : SET 신제품 출시 및 프로모션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수요 증가
  - TV 패널 : 노동절 및 보조금 프로모션 영향으로 중국 중심 수요 확대 (6% ↑ QoQ)
  - IT 패널 : 전분기 대비 수요 증가 (9% ↑ QoQ) 태블릿 중심 수요 성장세 지속
  - TV 제품은 60"+/UHD 등 고가제품 출시로 ASP 상승 IT 제품 가격 약세 지속
- 당사 : 고부가 패널 판매 확대 등으로 실적 소폭 증가
  - TV 패널 : 판매량, 전분기 대비 한자리수% 후반 증가 전년 동기 대비 한자리수% 후반 감소
    - 60"+ 초대형 TV 및 UHD 라인업 성공적 도입, 거래선 확대
  - IT 패널 : 고해상도 PLS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지속
- 프리미엄 스마트폰향 OLED 패널 판매 확대로 실적 개선

# 사업군별 실적 분석 [2분기]

## IM

### [무선]

#### □ 시장 : 비수기 속, 스마트폰 수요 소폭 성장

- 스마트폰 : 전분기 대비 낮은 한자리수 성장
- 태블릿 : 선진시장 감소, 신흥시장 성장

#### □ 당사 : 갤럭시 S4 견조한 판매 속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. 신모델 런칭 및 R&D/유통 투자 확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익 소폭 감소

- 스마트폰 : S4 글로벌 런칭, 지역별 북미·중남미·중국 성장
- 태블릿 : Note 8.0 출시 등 라인업 강화
- P C : 수요 감소 영향으로 판매량 감소

### [네트워크]

#### □ 일부 사업자 LTE망 투자 지연 등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 감소

## CE

### [TV]

#### □ 시장 : 비수기 및 유럽 시장 정체 속, FPTV 시장 전분기 대비 소폭 성장

- 수요는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한자리 초반 성장
- 선진시장 중심 LED 비중 확대 지속 (1Q 88% → 2Q 90%)

#### □ 당사 : 북미/중국 등 전략지역 라인업 강화, 판매 증가

- 프리미엄 제품 및 대형 사이즈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
- F7/8000시리즈 : 전분기 대비 판매량 7%↑ 증가
- 60"↑ 대형 매출 비중 : 1분기 9% → 2분기 12%
- 중국 등 신흥시장내 중/저가 라인업 강화, 판매 증가

### [생활가전]

#### □ 시장 : 저성장 기조 속, 에어컨 성수기 수요 증가

#### □ 당사 : 주력제품 라인업 강화/판매 확대 및 에어컨 성수기 효과 등으로 실적 증가

# 사업군별 하반기 시장 전망

## 반도체

### □ 메모리

- DRAM :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 모바일 수요 견조세 지속  
계절적 영향으로 PC 수요 소폭 증가,  
Datacenter향 서버 및 신규 게임기향 그래픽 수요 증가
- NAND : 모바일 신제품 출시 및 PC/Datacenter향 SSD 채용  
확대로 견조한 수요 성장세 지속

### □ 시스템 LSI

- 28나노 기반 AP 제품 및 고화소 이미지 센서 등 판매 확대  
적극 추진

## DP

### □ LCD

- 성수기 효과 기대 속, 유럽 수요 회복 지연 등 변수 있음
  - TV 패널 : 60"+ 초대형/UHD 시장 성장으로 Size 확대 지속
  - IT 패널 : 중저가 제품이 태블릿 성장 견인

### □ OLED : 고부가 스마트폰향 패널 수요 확대 지속 예상

- 사이즈 다양화 및 고해상도 등 라인업 확대

## IM

### □ 성수기 속, 스마트폰 및 태블릿 시장 성장 지속, 업체별 신제품 확대 등으로 경쟁 심화

- 스마트폰 : 선진 및 신흥시장 내 고른 성장
  - 선진시장 : LTE 교체 수요 지속, 연말 프로모션 경쟁 예상
  - 신흥시장 : 중국 등 보급형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성장
- 태블릿 : 선진 및 신흥시장 모두 고성장
  - 업체별 신제품 확대 등 경쟁 심화 예상

## CE

### □ TV

- 성수기 수요 증가 기대 속, 선진시장 및 중국 내  
UHD TV 등 신규 프리미엄 시장 경쟁 도입 예상
  - 3분기 이후 프리미엄 신모델 출시, 본격적 판매 경쟁 예상

### □ 생활가전

- 전체 시장 저성장 전망 속, 신흥시장 중심 가전 수요 증가 예상

# [별첨 1] 요약재무상태표 (K-IFRS 기준)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           | '13년 2/4         | '13년 1/4         | '12년 2/4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<b>유동자산</b>    | <b>1,047,904</b> | <b>951,976</b>   | <b>734,602</b>   |
| - 현금 등 *       | 469,854          | 435,588          | 238,042          |
| - 매출채권         | 271,080          | 233,982          | 241,173          |
| - 재고자산         | 215,618          | 195,018          | 174,430          |
| - 기타유동자산       | 91,352           | 87,388           | 80,957           |
| <b>비유동자산</b>   | <b>989,712</b>   | <b>956,451</b>   | <b>928,398</b>   |
| - 투자자산         | 157,249          | 146,299          | 130,784          |
| - 유형자산         | 703,983          | 687,657          | 688,396          |
| - 무형자산         | 40,620           | 40,770           | 36,729           |
| - 기타비유동자산      | 87,860           | 81,725           | 72,489           |
| <b>자산계</b>     | <b>2,037,616</b> | <b>1,908,427</b> | <b>1,663,000</b> |
| <b>부 채</b>     | <b>653,821</b>   | <b>620,370</b>   | <b>560,359</b>   |
| - 차입금          | 138,251          | 123,563          | 144,716          |
| - 매입채무         | 105,264          | 104,781          | 105,163          |
| - 미지급금·비용      | 180,430          | 166,895          | 142,669          |
| - 미지급법인세       | 30,661           | 42,912           | 23,274           |
| - 선(예)수금       | 28,843           | 30,531           | 27,685           |
| - 기타부채         | 170,372          | 151,688          | 116,852          |
| <b>자 본</b>     | <b>1,383,795</b> | <b>1,288,057</b> | <b>1,102,641</b> |
| - 자본금          | 8,975            | 8,975            | 8,975            |
| <b>부채와 자본계</b> | <b>2,037,616</b> | <b>1,908,427</b> | <b>1,663,000</b> |

※ 현금 등 \* = 현금 및 현금성 자산 + 단기금융상품 +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

|                       | '13년 2/4 | '13년 1/4 | '12년 2/4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유동비율 (유동자산/유동부채)      | 197%     | 189%     | 165%     |
| 부채비율 (총부채/총자본)        | 47%      | 48%      | 51%      |
| 차입금비율 (총차입금/총자본)      | 10%      | 10%      | 13%      |
| 순차입금비율 ((차입금-현금)/총자본) | -24%     | -24%     | -8%      |



**[별첨2] 요약현금흐름표 (K-IFRS 기준)**

(단위 : 조원)

| 구분             | '13년 2/4     | '13년 1/4     | '12년 2/4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<b>기초현금*</b>   | <b>43.56</b> | <b>37.45</b> | <b>25.39</b> |
|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| 8.60         | 12.82        | 5.93         |
| 순이익            | 7.77         | 7.15         | 5.19         |
| 감가상각비          | 3.81         | 3.78         | 3.74         |
| 기타             | -2.98        | 1.89         | -3.00        |
|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| -6.00        | -4.45        | -6.48        |
| 유형자산의 증가       | -5.47        | -3.40        | -6.18        |
|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| 0.42         | -2.62        | -0.78        |
| 차입금 증감         | 1.33         | -2.69        | 0.27         |
| 현금증감           | 3.43         | 6.11         | -1.59        |
| <b>기말현금*</b>   | <b>46.99</b> | <b>43.56</b> | <b>23.80</b> |

※ 기초/기말 현금 \* = 현금 및 현금성 자산 + 단기금융상품 +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

□ 순현금 현황 (순현금 = 현금 등\* - 차입금)

(단위 : 조원)

| 구분         | '13년 2/4     | '13년 1/4     | '12년 2/4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<b>순현금</b> | <b>33.16</b> | <b>31.20</b> | <b>9.33</b> |

※ 현금 등 \* = 현금 및 현금성 자산 + 단기금융상품 +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

[ '13년 시설투자 계획 ]

- 전사 24조원 (반도체 13조원, DP 6.5조원 등)

※ 동 투자계획은 사상 최대였던 전년도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이며, 하반기 및 내년도 시행 등을 감안, 규모가 더 증가할 수 있음.